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해외 진출 기업의 60%, 수출 채산성 악화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과 영향

경영 노트

- 종업원 증시 경영으로 변하고 있는 미국 기업

사회 트렌드

- 얼리 리뷰어, TV광고보다 더 영향력
- 취업난 관련 신조어

저널 브리프

- 중국과 아프리카의 밀월시대 개막

洗心錄

- 현재(present)라는 선물(present)

□ 해외 진출 기업의 60%, 수출 채산성 악화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원화 절상의 영향으로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5개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 163사중, 48.1%가 마진이 매우 적고, 12.7%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일본 진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가장 악화되었는데, 이는 올해 6월말을 기준으로 1년 전 환율과 비교해 볼 때, 원화의 對 달러화 절상률(6.3%)보다 對 엔화 절상률(10.1%)이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됨
 - 한편 현재의 940원 대 환율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57.8%가 올해 수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응답함
- 대부분의 수출품들이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정도가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환율 절상분의 수출 가격 반영에 따르는 수출 물량 축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과 영향

- 북한은 5일 7기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 이는 군사력 과시와 위기 고조를 통해 북미 협상을 압박하고자 하는 ‘벼랑끝 전술’의 일환으로 평가
 - 북한은 대포동 2호 1기와 스커드 및 노동급의 중·단거리 미사일 6기 등 총 7기를 발사하였으며, 2~3기의 추가 발사 가능성도 존재
 - 대포동 2호는 발사 후 동해상에 추락해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각에서는 미국을 의식하여 사거리를 제한한 ‘의도적 실패’ 說도 제기
 - 발사 의도는 위기 고조를 통한 북미 직접 대화 촉구, 미사일 개발 능력의 과시, 김일성 주석 사망 7주기를 앞둔 내부 체제 결속 등의 복합적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
- 북미 및 남북 관계는 물론, 남북 경협에도 일정한 영향이 우려됨
 - 미국과 일본은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짓고 안보리 회부와 경제제재 강화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민간의 경협 사업과는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나, 이를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과 당국 차원의 대북 지원 중단 등으로 경협에 차질 우려

□ 종업원 중시 경영으로 변하고 있는 미국 기업*

- 과거 주주 중시 경영에 철저하던 미국 기업들이 최근 이해관계자로서의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경영으로 전환하고 있음
 - 포춘紙는 1998년부터 'Great Place to Work Institute'의 조사를 바탕으로 해마다 종업원이 '가장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을 발표하고 있으며, 순위에 들어가는 것을 명예로 여기는 기업들의 평가 참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에 든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종업원의 자발적 이직률은 평균 12%로 인재 유동성이 많은 미국에서는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미국 기업들에게 직원 중시 경영이 결국 이직자의 감소로 채용과 재교육의 비용 절감뿐 아니라, 뛰어난 팀워크에 의한 업무 효율화 및 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
- (사례) Fedex의 경우, 'People-Service-Profit'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직원을 우선시하는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를 지향
 - Fedex는 직원을 소중히 함으로써 고객서비스가 좋아지고 나아가 회사의 이익으로 연결되며 회사는 직원에 더욱 투자할 수 있다는 선순환 관계로 인식
 - 직원을 위한 사내 텔레비전국을 설치하여 영상을 통한 원활한 정보 교환 및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경영 방침의 전사적 공유를 추진
 - 또한 가족과 지인을 초청한 직원의 명예로운 자리를 마련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등 직원에 대한 동기 부여와 소속감 고취를 추구
- (시사점)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인적 자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기업 문화 조성이 성공 기업의 조건
 - 직원의 직무만족도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설비 등 하드 측면보다, 종업원의 사기와 의욕을 북돋우는 소프트 측면의 개선이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임을 시사
 -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핵심 인재의 이탈 방지 및 우수 인재의 유치를 유도하는 실천 대안이 필요

* Nikkei Business(2006.6.5)에 게재된 기사 및 관련 자료를 편집, 재구성한 것임

□ 얼리 리뷰어, TV광고보다 더 영향력

- 얼리 리뷰어(early reviewer)란 제품을 먼저 써보고 사용 후기를 올리는 소비자 집단을 말하는데, 이들이 인터넷에 쓰는 사용 후기는 네티즌의 제품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조선일보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시 가장 고려하는 점으로 응답자의 60.5%가 '실제 구입해 사용했던 사람들의 댓글'이라고 대답함
- 특히 인터넷 쇼핑몰 사이에선 얼리 리뷰어들의 상품평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음
 - 청바지나 구두처럼 착용해보지 않으면 구입이 꺼려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품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지난 2월에는 상품에 대한 사용 후기만을 전문적으로 올리는 사이트(www.usefirst.co.kr)도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기업이 제공한 신제품을 회원들에게 체험하도록 하고 경험담을 올리는 커뮤니티 사이트임
 - 얼리 리뷰어의 사용후기가 제품 구매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부정적인 면도 나타나는데, 일부 업체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가짜 사용 후기를 올리기도 함

□ 취업난 관련 신조어

-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올 상반기에도 어려운 취업 및 직장 환경을 반영한 재미있는 신조, 유행어가 등장함
 - 이구백 : 이십대의 90%가 백수
 - 십장생 : 10대들도 장차 백수가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 나홀로 서울족 : 취업을 위해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는 지방출신 구직자
 - 빌빌세대 : 취업 못한 신세를 자조적으로 일컫는 말
 - 공시(公試)족 : 장기간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준비하는 사람
 - 선거 고시 : 지방의원들이 고액연봉을 받게 되자 지방선거를 고시에 비유
 - 척추 월요일 :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주말 내내 누워 지내다가 월요일 출근했을 때 느끼는 허리 통증을 일컫는 말
 - 흠피니(흠+컴피니) : 집처럼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갖춘 회사
 - 직장 내신성적 : 회사에서 다면평가가 활성화되면서 이것이 고교 내신 성적 같다고 하여 만들어진 신조어

□ 중국과 아프리카의 밀월시대 개막*

- 자원 확보, 정치적 우군 확보 등을 위한 중국의 전략과 서방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아프리카 각국들의 정치적 목적의 일치로 두 지역의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음

- (중국의 전략)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정치적 우군 확보, 아프리카 시장 확보 등을 위해 對아프리카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 자원 확보: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남아프리카와는 민간 핵기술 교류 협정, 이집트와 가나와는 석유를 포함한 자원 협력 및 공급 계약, 알제리와 앙골라와는 장기 석유계약 등을 체결, 나이지리아와는 입찰 우선협상권 획득 등의 성과를 얻음
- 정치적 우군 확보: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와 아프리카 각국들과의 성명에는 ‘대만은 중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로 어떤 형식의 대만 독립도 반대한다’는 문구가 꼭 들어가는 등 중국의 아프리카 공략에는 ‘국제 사회에서의 우군’ 확보라는 목적도 있음
- 아프리카 시장 확보: 중국의 이러한 다각적 노력에 의해 중국과 아프리카의 무역 규모는 2000년 100억 달러에서 2005년 397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아프리카의 3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급부상함

- (아프리카 각국의 전략)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서방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재원 조달: 이집트는 5,000만 달러의 차관과 1,000만 달러의 원조를, 가나는 통신시설을 위한 6,600만 달러의 차관을 약속받는 등 아프리카 각국들은 중국으로부터 국가 운영을 위한 재원을 조달받고 있음
- 서방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해방: 중국은 자국과 자원 및 경제적 관계가 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각국들은 중국의 이러한 전략을 서방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해방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음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6.07.10)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현재(present)라는 선물(present)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스펜서 존슨가 내놓은 <선물>(present)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현재(present)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present)라는 사실이다. “도대체 난 언제쯤 성공할 수 있을까? 언제쯤 행복해질까?” 마법과도 같은 행복과 성공의 비밀, 바로 무심히 흘러보낸 오늘 속에 감춰져 있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오늘뿐, 내일을 오늘로 앞당겨 쓸 수도, 지나간 어제를 끌어다 부활시킬 수도 없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세상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스펜서 존슨의 주장이다.

세 가지 의문

톨스토이(1828~1910)의 단편소설, <세 가지 의문>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한다. 한 임금이 인생에서 풀지 못한 세 가지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성인으로 알려진 산골의 은자를 찾아 갔다. 첫째, 모든 일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둘째,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존재인가?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러나 은자는 묵묵히 발만 갈고 있었다. 이때 숲속에서 피투성이 청년이 달려나왔다. 임금은 자신의 옷을 찢어 청년의 상처를 싸매주고 정성껏 간호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임금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젊은 신하였다. 그 청년은 임금의 간호에 감격하여 원한을 풀고 더 충성스런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이 일을 지켜 본 은자는 해답이 이미 나왔다고 임금에게 말했다

첫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둘째, 제일 중요한 존재는 지금 대하고 있는 신하 바로 그 사람이며,

셋째,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과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훌륭한 삶이란 사랑과 친절에서 나온 사소하고
보잘 것 없는 행위들로 이루어진다.”

- 윌리엄 워즈워스(1770~1850) : 영국의 낭만파 시인